

청소년 평화통일기자단의

일 년 나 기



이 건 준 기자(반여고 2)



윤 동 석 기자(대전중 3)



조 은 선 기자(동향중 1)



윤 효 정 기자(남천중 1)



▲ 경남의령 직접 통일쌀농사 모내기예 참가한 기자들이 행사를 마친 후.



▲ 영상교육에 참가한 기자들이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캠코더 촬영법을 배우고 있다.



▲ 발대식에서 기자증을 수여받은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.

·기자단 활동 일지

4월 6일	면접고사
4월 19일	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
5월 6일~8일	기자단 1차교육
5월 24일~25일	기자단 2차교육
6월 1일	통일농사 모내기취재
6월 15일	6.15기념경기대회 취재 및 부산일보기자초청 교육
6월 25일	부산시교육감 인터뷰
6월 27일~29일	금강산 취재
7월 12일	기사표제작성 교육
7월 24일	김대중 前 대통령 인터뷰
7월 26일~27일	워크샵
8월~10월	영상제작교육 및 통일영상제작
9월 1일	청소년평화통일 신문 발간
9월 말	평양양묘장 준공행사 대표단 취재
11월	통일영상제작 가족시사회



▲ 기자단이 6.15경기대회에 참가한 배우 안석환씨를 인터뷰하고 있다.

조은선 :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남측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북측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컴퓨터 게임을 개발하는 건 어때요? 저는 RPG게임 매니아 인데요... 하하

중학교 1학년 조은선 학생의 기발한 제안에 모두들 즐겁게 웃으며 좌담회를 마무리 했다.

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애정으로 바뀌어 가는 청소년들의 푹푹 튀는 이야기를 들으며 통일교육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활동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리고 이런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다.

'대화는 서로를 살찌우는 귀중한 선물'이라는 사실.

오늘의 좌담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생각은 아마도 한 뼘 좁은 더 자랐을 거라는 사실.

무엇보다도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할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선물들을 마련해 주기 위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다는 사실.

기자단 **넋두리**

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취재한 것으로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평화통일문화를 창출 하는데 기여하고자 만들어졌다. 기자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 수차례 기자교육을 실시했으며, 미디어시대에 걸맞게 영상교육에도 힘썼으나 청소년기자들은 여전히 배 고파 하고 있다.(봤는데 안 먹었는지, 먹었는데 뇌로는 안 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TT) 특히, 통일에 무관심했던 기자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중요성을 스스로 찾아가는 모습은 자신들을 놀라게 했으며, 여전히 취재를 앞두고도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는 어린 기자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분발해야 겠다고 스스로 들 생각하고 있다. ㅎㅎ